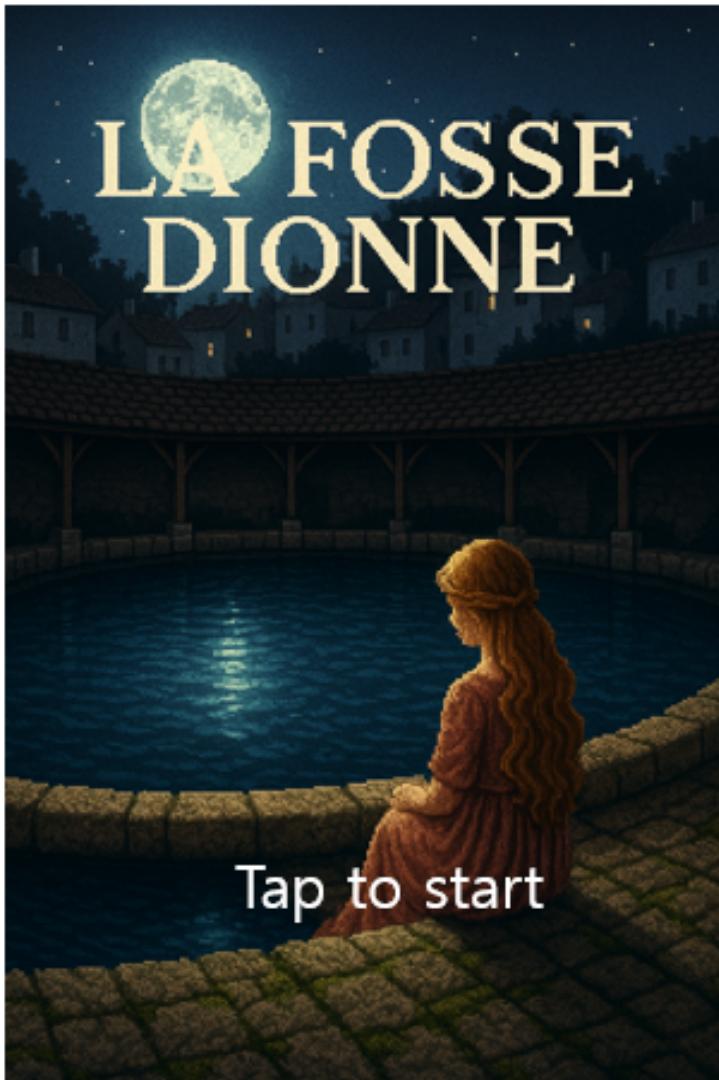


# ㅎ메 || ㅍ

① 작성일시	@2025년 6월 21일 오전 2:27
Nº ID	TSK-58
※ 작성상태	시작 전



## 인트로 (첫 메인 포인트 시작)

서막: 운명의 만남과 전설의 그림자

안개 자욱한 여명 속, 당신은 중세의 작은 마을 **토네르**에서 평범한 일상을 살던 청년이었다. 이 마을에는 오래된 비밀이 숨겨져 있었는데 바로 마을의 심장부에 자리한 신비로운 연못 **라 포세 디온(La Fosse Dionne)**에 관한 이야기였다.

"보름달이 떠오를 때면, 물 속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깨어난다 지. 그 눈을 마주치는 자는 영원히 돌이 되어 마을의 일부가 된다네."하며 마을의 노인들은 사람들에게 경고하곤 했다.



당신도 처음에는 그런 미신을 믿지 않았다. 그러나 지난 몇 달간 마을에서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다. 몇몇 사람들이 실종되었고, 마을 외곽에서는 이따금 동물의 석상이 발견되곤 했다.

그러던 어느 날, 당신은 **라 포세 디온**에서 한 **여인**과 마주쳤다. 그녀의 모습은 안개처럼 신비롭고 아름다웠으며, 두 사람은 마치 오래전부터 서로를 기다려왔다는 듯 빠르게 가까워졌고, 이내 연인 관계가 되었다. |

그러던 어느 날 은빛 보름달이 하늘을 가득 채운 밤, **라 포세 디온**에서 당신을 기다리던 그녀는 달빛을 은은한 등불 삼아 고요한 수면 위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며 머리칼을 매만지고 있었다.

당신이 그녀에게 인사 하려 던 순간, 연못 너머에서 음산한 형상이 물에 비쳤고—그녀는 그 존재와 눈이 마주친 채 점점 굳어가기 시작했다. 그녀의 몸이 차갑게 변하며 외 마디 비명과 함께 굳어버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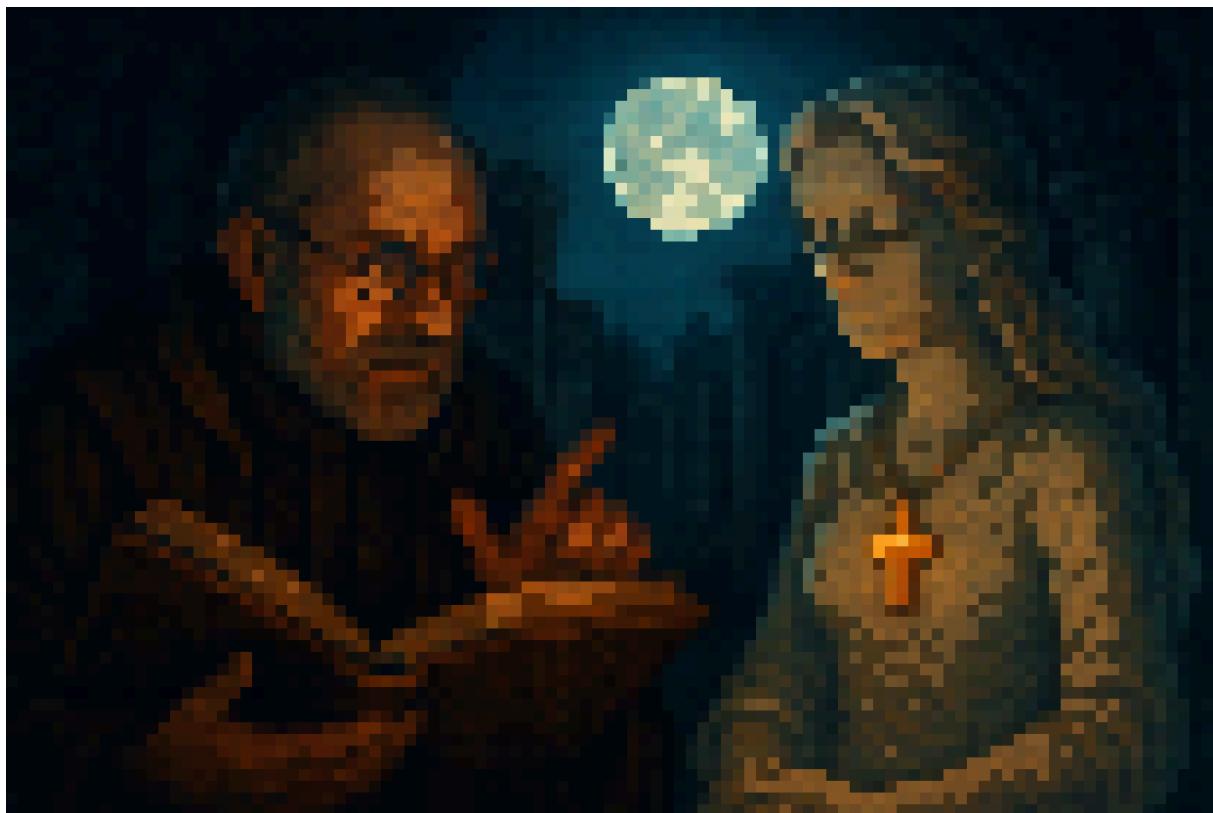


당신은 대리석처럼 차갑게 굳어버린 그녀를 안고 심장이 터져라 성당으로 달려갔다. **늙은 신부**는 당신의 절박한 외침을 듣고 달려 나왔다.

**신부**는 굳어버린 그녀를 보자마자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는 당신을 성당 안으로 급히 데려갔다. 오래된 금서를 떨리는 손으로 꺼내 들며 그가 중얼거렸다.

"**바실리스크의 저주로군**. 오래된 전설이 현실이 되었구나." 그는 책장을 넘기며 계속했다.

"그녀가 아직 완전히 돌로 변하지 않은 건 목에 걸린 **성수 십자가** 덕분이겠지. 하지만 이 상태로는 오래 버티지 못할 거야. 저주를 풀기 위해선 그 괴수를 직접 처치하는 수밖에 없네."



당신은 한순간도 주저하지 않았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신부**는 깊은 숨을 내쉬었다. "저주를 건 바실리스크를 처치하면 저주가 풀릴 걸세. 전설에 따르면, **바실리스크는 자신의 모습이 거울에 비치는 것을 볼 경우 스스로도 돌이 될 수 있다고** 하네. 하지만 단순한 거울로는 부족할 거야. 특별한 힘을 지닌 물건이 필요하지. **엘리제 기록** 관으로 가 보게 세상 모든 문서가 모이는 곳이니 아마 거기에 자네가 찾는 게 있을 걸세"

당신은 굳어버린 **연인을** 성당에 두고, 새벽녘 마을을 등지고 모험의 길을 나섰다.

당신은 울창한 숲길을 걸으며 새소리와 바람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있었다. 햇살이 나뭇잎 사이로 스며들어 길 위에 얼룩진 그림자를 만들고 있었다. 그런데 갑자기 주변이 조용해졌다. 새들이 지저귀던 소리도, 나뭇잎이 바스락거리던 소리도 모두 멈췄다. 마치 숲 전체가 숨을 죽이고 있는 것 같았다.

당신은 발걸음을 멈추고 주변을 살폈다. 그때 어둠 속에서 무언가 반짝이는 것이 보였다. 날카로운 눈빛이 당신을 노려보고 있었다. 덤불이 바스락거리며 무언가가 움직이기 시작했다.

위험이 다가오고 있었다.



---

---

## 중간 메인포인트 시작

《사라진 기록과 눈먼 증인》

험준한 산맥의 바위투성이 길을 넘고, 끝없이 펼쳐진 고요한 평원을 지나던 당신은 어느 한 외딴 마을 엘리제에 닿았다. 마을은 작고 쓸쓸했으며, 회색빛 안개에 감싸인 언덕 아래에 자리한 풍화된 석조 건물 하나가 눈길을 끌었다. 건물 입구에는 **엘리제 지방 기록관**이라 새겨진 오래된 간판이 바람에 삐걱거리고 있었다.



묵직한 나무문은 녹슨 경첩 소리를 내며 천천히 열렸다. **기록관** 내부는 먼지와 오래된 책의 향기로 가득했고, 어두운 나무 서가에는 시간의 흔적이 깃든 양피지 문서들이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었다. 당신은 며칠 간의 여정으로 지친 몸을 한 켠의 의자로 이끌고 잠시 눈을 감았다. 잠시 후 시선을 열었을 때, 한 작은 책자가 빛나듯 당신의 눈길을 사로잡았다. 빛바랜 붉은 가죽 표지에는 희미하게 새겨진 글씨가 있었다.

### 《바실리스크의 눈 – 금기된 전설의 단편》

#### 문서 속 내용

"**바실리스크**는 살아 숨 쉬는 재앙이라 불렸다. 그 눈빛을 마주한 자는 누구든 돌이 되어 산산이 부서졌다. 그러나 단 한 사람, 그 누구보다 조용히, 그 누구보다 단단히 돌아온 이가 있었다."

"사람들은 그를 '빛을 담는 거울'이라 불렀다. 세상을 꿰뚫되, 달의 그림자는 담지 않고 오직 태양의 빛만을 반사했던 자. 그가 남긴 유물은 흩어졌고, 그 일부는 사슴의 형상에 깃들었다 전해진다. 사슴은 새벽의 첫 빛을 맞이하는 존재의 상징이었다."

"하지만 그 뒤의 이야기는 누구도 알지 못한다. 전설은 여기서 끊기고, 남겨진 건 조각난 파편과 침묵뿐이다."



당신은 천천히 책장을 덮었다. 그리고 묵직한 책을 들고 기록관 주인에게 다가가며 조심스럽게 물었다.

"이 기록에 나오는 눈 먼 자는... 혹시 실존 인물입니까?"

늙은 기록관 주인은 잠시 창밖을 바라보며 침묵하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를 '비르나'라 부른다네. 지금은 저 눈 덮인 산 너머 '엘라틴' 마을에 머물고 계시지. 오래전... 이 마을에 들렀을 때 그 분의 손에는 황금빛 거울 조각이 있었어요. 아무것도 비치지 않는 거울을 들고도 그 누구보다 더 많은 것을 비쳐 보는 듯했지."

기록관 주인이 이야기를 마치자, 당신은 주변을 둘러보았다. 어둠 속에서 먼지가 쌓인 수많은 고서들이 당신을 바라보고 있었다. 기록관 주인은 잠시 창밖의 날씨를 확인하기 위해 자리를 비우려 하고 있었다.

---

#### 공통 연결:

"어떻게 제가 바실리스크를 찾는다는 걸 아셨죠?" 당신이 놀라 물었다.

기록관은 씁쓸한 미소를 지었다. "최근 들어 이 책을 찾는 사람들이 늘고 있네. 라몽 드 베르네이의 사람들도 며칠 전 다녀갔지. 그들은 **바실리스크**에 관한 모든 기록을 찾고 있었어. 조심하게나. 그들은 그대와는 다른 목적을 가졌을 테니."

당신은 어째서 **토네르** 마을의 성주가 어째서 그런 일을 하는 지는 의문이었지만 지금은 **엘라틴**으로 가 **비르나**라는 인물을 찾는 것이 더 중요했다. 당신은 급히 발걸음을 옮겼다.

---

## 《엘라틴으로의 여정》

차가운 눈발이 휘몰아치는 산길을 따라 당신은 **엘라틴**으로 향했다. 발걸음마다 무릎까지 차 오르는 눈을 헤치며 이를 밤을 산중에서 보낸 후, 마침내 안개 속에서 마을의 윤곽이 드러났다. 그곳은 이끼 낀 돌담과 짙은 회색 지붕으로 덮인 외딴 마을이었고, 중심에는 작고 빠걱거리는 나무 여관 한 채가 덩그러니 놓여 있었다.



여관 내부는 황토색 화롯불 빛만이 어둠을 밀어내는 조용한 공간이었다. 안쪽 구석, 서리꽃이 핀 창가에는 백발이 무성한 노인 한 사람이 홀로 앉아 있었다. 그녀는 마치 얼어붙은 시간 속에 갇힌 듯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들고 무언가를 듣는 듯했다. 당신은 며칠간의 험한 여정으로 지친 몸을 느끼며 여관 주인을 바라보았다. 따뜻한 곳에서 쉬고 싶은 마음도 있었지만, 무엇보다 비르나를 찾는 것이 급했다.



---

### 공통 연결:

"실례합니다. 혹시 '비르나'라는 분에 대해 아시나요? 저는 그분을 찾기 위해 눈보라를 뚫고 왔습니다."

노인은 한동안 당신의 말에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굳어버린 조각상처럼 미동도 없이 앉아있던 그는, 잠시 후 마치 오랜 잠에서 깨어난 듯 미세하게 고개를 끄덕이더니 바람결 같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그 괴물과 마주한 자를 찾고 있다면... 이 마을 언덕 위, 안개 너머에 있는 사당을 먼저 가보게..."

"실례지만, 혹시 이 마을에... '비르나'라는 분이 계시다 들었습니다. 그분을 꼭 만나 뵙고 싶습니다."

여관 주인은 잠시 당신을 위아래로 살펴보고는, 의미심장한 눈짓으로 창가의 **노인**을 가리켰다.

"말씀은 별로 없으시지만, 저 **노인장**이 누구보다 오래 이 마을에 계셨지요. 이 마을에 관한 일이라면 저분이 잘 알 거요"

심호흡을 한 뒤, 당신은 조심스럽게 노인에게 다가갔다.

"실례합니다. 혹시 '비르나'라는 분에 대해 아시나요? 저는 그분을 찾기 위해 눈보라를 뚫고 왔습니다."

**노인**은 한동안 당신의 말에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굳어버린 조각상처럼 미동도 없이 앉아있던 그는, 잠시 후 마치 오랜 잠에서 깨어난 듯 미세하게 고개를 끄덕이더니 바람결 같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그 괴물과 마주한 자를 찾고 있다면... 이 마을 언덕 위, 안개 너머에 있는 사당을 먼저 가보게. 거기서 자네가 원하는 답을 얻을 수 있을 거네."



그러고는 주름진 손을 천천히 뻗어, 당신에게 **빛바랜 열쇠** 하나를 내밀었다.

"이걸 가져가게. 자네의 여정에... 빛이 함께하길."

#### +**빛바랜 열쇠**

당신은 어안이 벙벙했지만 고개를 숙이며 열쇠를 받아들었다. **노인**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다시 고요 속으로 돌아갔다. 그때서야 당신은 그녀의 눈동자가 빛이 없는 유백색 유리구슬처럼 텅 비어 있음을 알아챘다. **노인**은 맹인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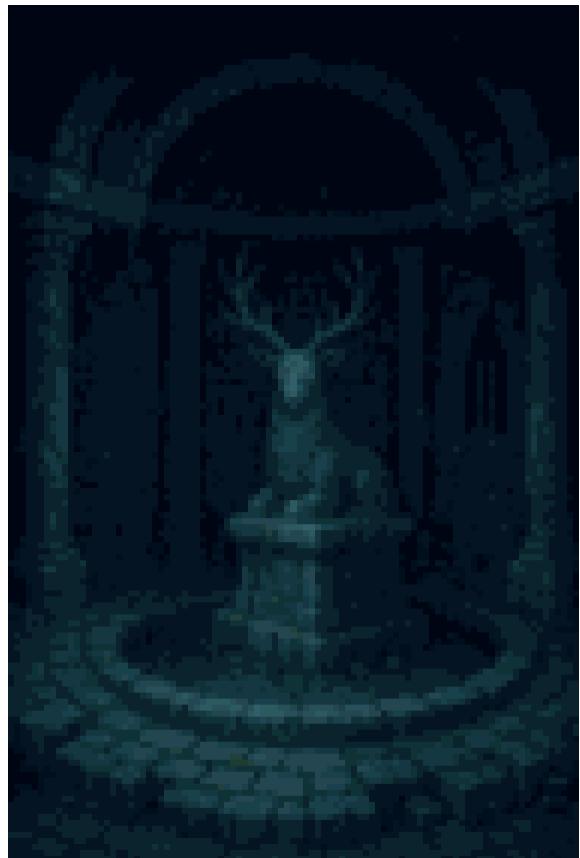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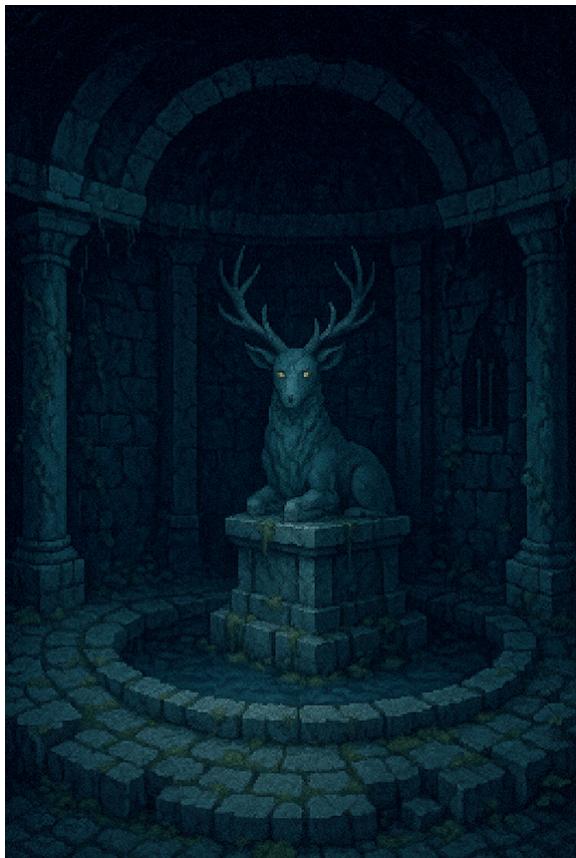
## 《사슴의 눈》

'엘라틴' 마을 언덕 너머, 거칠게 갈라진 바위 틈 사이로 숨듯이 자리한 오래된 사당으로 향했다. 길은 없었고, 오직 안개와 눈을 헤치며 직감을 따라 발걸음을 옮겼다. 사당은 마치 세상에서 잊혀진 듯 고요했고, 시간이 멈춘 것 같은 적막이 감돌았다.

녹슨 철장으로 단단히 잠긴 문 앞에서, 당신은 어떻게 들어갈지 고민했다.

---

사당 내부는 싸늘하고 습했다. 구석에는 작은 샘이 흐르고 있었고 희미한 햇살이 무너진 천장 틈으로 스며들어, 공중을 떠도는 먼지 입자들을 비추고 있었다. 어둠 속에 가려진 조각상 하나가 빛줄기 가운데 서 있었다. 그것은 **사슴의 형상**이었다.



그러나 사슴의 눈은 검게 얼룩진 이끼와 피처럼 뿌려진 흙먼지로 더럽혀져 있었다. 눈을 들여다보니 그 안에서 뭔가 들끓는 듯한 기분 나쁜 기척이 일었다. 마치 살아있는 어둠이 꿈틀거리는 듯했다.

등줄기에 식은땀이 흘렀다. 직감적으로 당신은 사당 내부에 무언가 다른 존재가 있다는 것을 느꼈다. 사슴의 눈을 정화해야 할 것 같았다.

---

사슴의 눈이 다시 빛을 찾자, 사당 전체에 평화로운 기운이 감돌았다. 당신은 이제 비르나에게 돌아가 다음 단계를 준비해야 했다.

## 《전환 포인트: 사당 정화 후 귀환》

거울 조각을 품에 안고 다시 마을로 돌아오자, 여관 창가의 노인은 마치 당신의 발소리를 이미 알고 있었다는 듯 조용히 고개를 들었다.

"사슴의 눈은... 다시 빛을 찾았겠지? 이제 자네가 원하는 것을 들려주겠네. 사실 자네가 찾던 **비르나**가 나 일세. 정확히는 그의 **후손**이지."

당신은 미세하게 놀랐지만, 어딘가 짐작했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다. **비르나**는 무언가를 달라는 듯 주름진 손을 내밀었다.

당신은 사당에서 얻은 거울 조각을 조심스럽게 노인의 손에 올려놓았다. **비르나**는 그것을 마치 오랜 벗을 만난 듯 떨리는 손끝으로 형태를 더듬었다. 잠시 후, 주름진 입가에 얇은 미소가 번졌다.

"이 조각... 오랜만이구나. 손에 다시 절 줄은 몰랐지. 어느 날, 누군가가 그것을 거울 삼아 태양의 진실을 비추고, 달의 그림자에 숨은 두려움을 물리칠 거라 생각했었네."

그는 허공을 바라보며 조용히 중얼거렸다.

"이제 이건 자네의 것일세."

그제야 당신은 기록관에서 읽었던 전설의 의미를 깨달았다. **빛을 담는 거울**이 바로 이것이었다.

그리고 지금 당신 앞에 앉은 **노인**, 그 아무것도 비추지 않는 유백색 눈동자의 주인이 바로 전설 속 인물이었다. **비르나**는 더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그의 손 위에 놓인 거울 조각만이 조용히 황금빛을 머금고 있었다.

## 《진실의 그림자: 숨겨진 연결》

**비르나**는 당신이 떠날 준비를 하는 것을 느끼는지, 잠시 후 한 마디를 덧붙였다.

"자네가 찾는 바실리스크에 대해 나도 모든 것을 알진 못하네. 하지만 오래된 이야기 하나는 들려줄 수 있지."

**비르나**는 천천히 손가락으로 탁자 위에 지도를 그리듯 움직였다. 마치 눈에 보이지 않는 풍경을 더듬는 듯했다.

"라 포스 디온 연못과 뷔 샤토 플라토(Vieux Châteaux Plateau) 성은 오래전부터 연결되어 있었다고 해. 연못의 물은 지하 통로를 통해 성으로 흐르고, 성의 비밀은 연못에 잠겨 있다고 전해지지."

**비르나**는 당신에게 건넨 거울 조각을 가리켰다.

"이 거울은 태양의 진실을 담고 있네. **바실리스크**의 힘은 달에서 나오는 것. 하지만 태양의 빛 앞에서는 약해질 수밖에 없지. 자네가 여정을 시작한 곳, **라 포스 디온**으로 돌아가게. 거기서 모든 것이 시작되었으니, 그곳에서 답을 찾아야 할 거야.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새벽이 밝아올 때... 태양빛이 드리워 거울을 비추어야 한다는 것이네."

당신은 결연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다시 **라 포스 디온**으로 가야겠군요."

**비르나**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며 경고의 말을 덧붙였다.

"그리고 명심하게. **라몽 드 베르네이**를 주의하게. 그의 무리들이 마을 주변을 감시하고 다닌다고 들었어. 조심해야 하네. 비밀 통로에 대한 전설은 많지만, 모두 위험을 동반한다네. 그리고 **라몽 드 베르네이**가 달의 의식을 행하는 것은 보름달이 뜨는 밤이지. 그때를 노려야 할 거야."

당신은 결연한 마음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다시 처음으로 돌아갈 때였다. 당신의 가슴 속에는 **연인**을 향한 그리움과 구원의 의지가 불처럼 타올랐다.

---

저녁 안개가 짙게 깔린 황량한 평원을 가로지르던 중, 당신은 발걸음을 멈췄다. 차가운 바람이 불어와 등골을 서늘하게 만들었고, 주변 공기가 점점 무거워지는 것을 느꼈다. 멀리서 올빼미 울음소리가 들려오던 것도 언제부턴가 사라졌다. 당신의 숨소리만이 고요한 밤공기를 가르고 있었다.

그때 발밑의 마른 풀들이 이유 없이 바스락거리기 시작했다. 바람이 불지도 않는데 말이다. 어떤 존재가 이 근처에 있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느꼈다.

당신의 그림자가 달빛에 길게 늘어지자 그림자 옆으로 또 다른 그림자가 천천히 다가오고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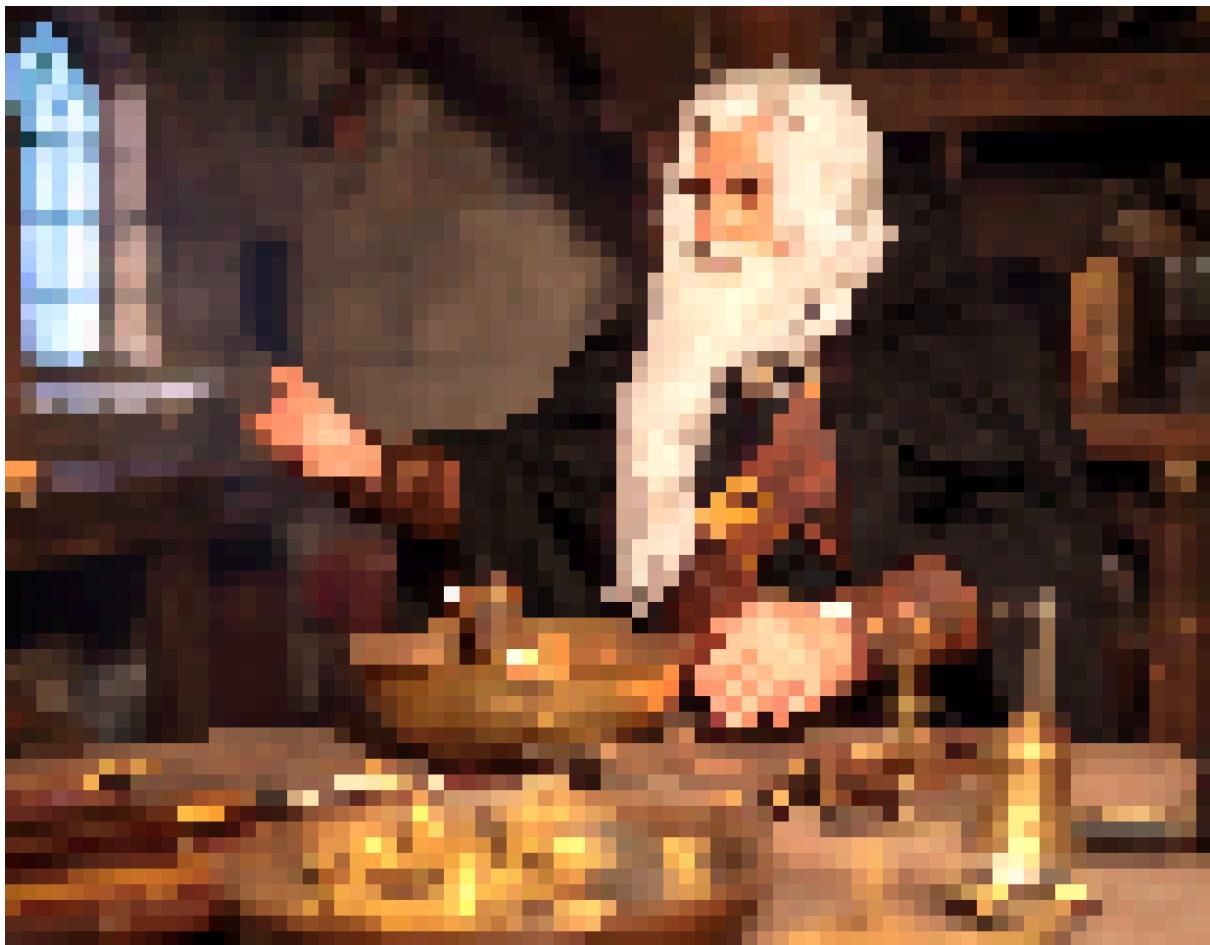
당신은 몸을 돌려 그 존재와 마주할 준비를 했다.



폐허가 된 오래된 여관 앞에서 당신은 발걸음을 멈췄다. 건물은 반쯤 무너져 있었지만, 그 안에서 따뜻한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다. 호기심에 이끌려 안으로 들어가니, 놀랍게도 한쪽 구석이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다. 그곳에는 검은 로브를 입은 신비로운 상인이 앉아 있었다. 그의 앞에는 고급스러워 보이는 무기들과 장신구들이 정교하게 진열되어 있었다.

"잠깐만요, 여행자님." 상인이 후드를 벗으며 말했다. 그의 눈에는 지혜로운 빛이 깃들어 있었다.

"당신 같은 분이라면 이런 평범한 물건들로는 만족하지 않으실 테죠. 제가 특별히 수집한 귀중한 물건들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그가 손짓하자 진열대 위의 물건들이 은은한 빛을 발하기 시작했다.



---

## 마지막 메인 포인트 시작

### 비밀의 귀환

라 포스 디온으로 돌아가는 길은 생각보다 험난했다. 찬바람이 뱃속까지 파고드는 계곡과 짙은 안개로 덮인 숲을 지나며, 당신은 비르나에게서 받은 **태양 거울**을 가슴팍에 단단히 품었다.



당신은 끝이 다가오고 있다 느끼며 작게 속삭였다.

"돌아왔구나..."

여러 날의 여정 끝에, 마침내 첫 여정을 시작했던 토페르 마을의 윤곽이 저녁 노을 속에서 드러났다. 마을은 겉보기에 이전과 다름없이 조용했으나, 무언가 달라진 듯한 기운이 감돌았다.

마을로 돌아오는 길에, 당신은 이전과 다른 분위기를 느꼈다. 창문마다 촛불이 꺼져 있었고, 거리에는 아무도 보이지 않았다. 간간이 들리는 속삭임과 빗장 소리만이 이 마을이 완전히 죽은 것이 아님을 알려주었다. 누군가가 창문 틈으로 당신을 바라보다 눈이 마주치자마자 창문을 닫았다.

해가 완전히 저물고 마을 여관에 들어서자, 안에 있던 모든 이들의 시선이 일제히 당신에게 쏠렸다. 무거운 침묵이 흐르던 중, 여관 주인이 조심스럽게 다가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돌아왔구만. 자네가 떠난 후로 이상한 일들이 많았어. 라몽 드 베르네이 경의 병사들이 마을 곳곳을 수색하고 다녔지. 듣기로는 바실리스크와 연관된 사람을 찾는 다더군."



당신은 작게 속삭이며 질문했다.

"라몽 드 베르네이가 왜 바실리스크와 연관된 사람을 수색한다는 겁니까?"

주인장은 주변을 살피더니 목소리를 더욱 낮추어 속삭였다.

"소문에 따르면, 라몽 드 베르네이는 전설 속의 바실리스크와 무언가 깊은 연관이 있다고 하더군. 하지만 그 누구도 확실한 건 알지 못해 다만... 성 근처에서 이상한 의식이 벌어진다는 소문이 돌고 있어. 불길한 붉은 빛과 기이한 노랫소리가 들린다고 하지"

당신은 불현듯 비르나의 경고를 떠올렸다.

'라몽 드 베르네이를 주의하게..'

## 술겨진 문서

여관을 나와 마을 성당으로 향했다. 당신의 연인을 저주에서 구하기 위해 처음 도움을 청했던 그곳은 석양 빛에 물든 첨탑이 하늘을 찌르듯 솟아 있었다. 조심스레 성당 문을 열자, 제단 근처에서 신부의 모습이 보였다. 그는 당신을 보고 놀란 듯 눈을 크게 떴다.

"돌아왔구나! 무언가 찾았는가?"

성당 안으로 들어선 당신은 비르나에게서 들은 이야기와 얻은 태양 거울에 대해 자세히 이야기했다. 신부는 당신의 말을 진지하게 듣고는 깊은 생각에 잠겼다.

"그런데 제 연인은..." 당신이 제단을 바라보며 물었다.

신부의 얼굴이 어두워졌다. "그게... 자네가 떠난 지 사흘 후 라몽 드 베르네이의 병사들이 왔다네. 그들은 '성스러운 조사'를 위해 그녀를 데려가야 한다고 했지. 난 그들을 막으려 했지만..." 신부는 이마에 난 상처를 가리켰다. "그들의 힘에는 당할 수 없었네."

당신은 주먹을 움켜쥐었다. "어디로 데려갔습니까?"

"뷰 샤토 플라토 성이겠지. 라몽 드 베르네이의 영지야." 신부가 답했다.

"라 포스 디온과 뷔 샤토 플라토 성의 연결... 그리고 라몽 드 베르네이..." 신부는 턱수염을 쓰다듬으며 중얼거렸다. "기다려보게. 내게 떠오르는 것이 있어."





신부는 횃불을 들고 성당 깊숙한 지하실로 당신을 이끌었다. 축축한 공기가 감도는 지하실에서 그는 오래된 나무 문서함을 열쇠로 열고 조심스럽게 뒤적였다. 잠시 후, 그는 먼지 쌓인 낡은 양피지 두루마리 하나를 꺼내들었다.

"자네가 떠난 후 나도 가만히 있지 않았네. 50년 전 기록을 다시 찾아보니... '태양의 자녀들'이라는 결사가 남긴 장비들이 성당 지하 창고에 있다는 걸 알았지. 달의 제사장들과 맞서 싸웠던 성기사들의 유물들이야. 라몽과 대적하려면 그런 성스러운 힘이 깃든 무기가 필요할 거라 생각했거든."

"이건 50년 전 기록이네. **라몽 드 베르네이**의 선조에 관한 이야기야. 그 당시 이 지역에는 '달의 제사장들'이라 불리는 비밀 결사가 있었다고 해. 그들은 달의 힘을 이용해 특별한 의식을 행했지."

노란 횃불 빛 아래, 양피지에 그려진 흐릿한 그림이 떨리듯 움직였다. 반은 인간, 반은 파충류의 모습을 한 기괴한 존재가 달빛 아래 서 있는 모습이었다.

신부는 조심스럽게 양피지를 넘기더니 또 다른 그림을 가리켰다. 그것은 태양의 형상을 한 성스러운 상징이었고, 무수한 빛줄기가 뻗어나가는 모습이 묘사되어 있었다.

"그런데 여기 더 중요한 기록이 있네. '태양의 자녀들'이라는 결사가 달의 의식에 맞서 싸웠다고 해. 그들은 **특별한 거울**을 사용해 **바실리스크**의 힘을 막았다는 기록이 여기 있어."

**신부**는 양피지를 조심스럽게 내려놓으며 깊은 숨을 내쉬었다. 성당 위층으로 돌아와 빈 제단을 바라보며, **신부**는 조용히 덧붙였다.

"자네의 연인인 그녀가 아직 완전히 돌로 변하지 않은 것은 그녀의 몸에 흐르는 성직자의 피와 **성수 십자가** 덕분이겠지. 그녀는 이 성당에서 봉사하던 수녀였어. 그래서 달의 힘에 어느 정도 저항력이 있었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영원히 버틸 수 있는 건 아니야. 그들이 그녀를 데려간 이유가 뭔지 이제 짐작이 가는군. **라몽**의 의식에 그녀가 필요했던 거야."

당신은 굳은 표정으로 결심했다. "다음 보름달은 언제입니까?"

"열흘 뒤 밤이지," **신부**가 대답했다. "서둘러야 해. 보름달이 떠오를 때 **그들은** 의식을 시작할 거야."

신부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당신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복잡한 감정이 스쳐지나갔다.

## 최종장: 달빛 아래의 결전

### 《그림자 속의 침입》

보름달이 떠오르기 몇 시간 전, 당신은 **신부**와 함께 **뷰 샤토 플라토 성**으로 향하는 비밀 경로를 찾기 위해 **라 포스 디온** 연못가로 향했다. **비르나**가 말한 대로, 연못과 성을 잇는 **지하 통로**가 있다면 그곳을 통해 들어가는 것이 최선이었다.

달빛이 수면에 반사되어 은빛 물결을 만들어내는 연못 주변을 살피던 중, **신부**가 연못 동쪽 가장자리의 거대한 바위를 가리켰다.

"저기... 저 바위 밑에 뭔가 있어 보이는군."

두 사람이 힘을 합쳐 이끼로 덮인 바위를 밀어내자, 그 아래 좁은 석조 계단이 모습을 드러냈다. 계단은 깊은 어둠 속으로 이어져 있었고, 축축한 공기가 올라와 얼굴을 스쳤다.

"이곳이군," 당신이 중얼거렸다. "**비르나**가 말한 **지하 통로**."



**신부**는 당신의 어깨에 손을 올리며 말했다. "자네 혼자서는 성 안에 들어가기 어려울 거야. **라동의 병사들이** 성 곳곳을 지키고 있을 테니."

"그럼 어떻게..."

**신부**는 결의에 찬 표정으로 답했다. "내가 성 정문으로 가서 '**라동**'에게 긴급히 전할 말이 있다'고 소리칠 거야. 그들이 나를 막으려 하면 더 큰 소동을 부리고. 병사들이 나에게 집중하는 사이 자네가 지하로 들어가게."

"너무 위험합니다, **신부님**."

**신부**가 의연한 미소지었다. "40년간 이 땅에서 살았네. 도망칠 곳 쯤은 잘 알고 있지. 그리고..."

그가 당신의 손을 잡았다. "이건 내 의무이기도 해. 행운을 비네."

## 《**신부의 희생과 침입**》

**신부**와 헤어진 후, 당신은 혼자 어두운 지하 통로로 내려갔다. 통로는 생각보다 깊고 복잡했다. 횃불의 불빛만을 의지해 미로 같은 통로를 헤쳐나가며, 당신은 점점 강해지는 불길한 기운을 느꼈다.

멀리서 성당의 종소리가 울려 퍼졌다. **신부**가 약속대로 병사들을 유인하고 있는 것이었다. 이어서 고함소리와 발걸음 소리가 들렸다가 점점 멀어져갔다.



한참을 걸어가던 중, 통로 끝에서 희미한 붉은 빛이 새어나오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 빛과 함께 낮고 음침한 목소리들이 무언가를 암송하는 소리가 들려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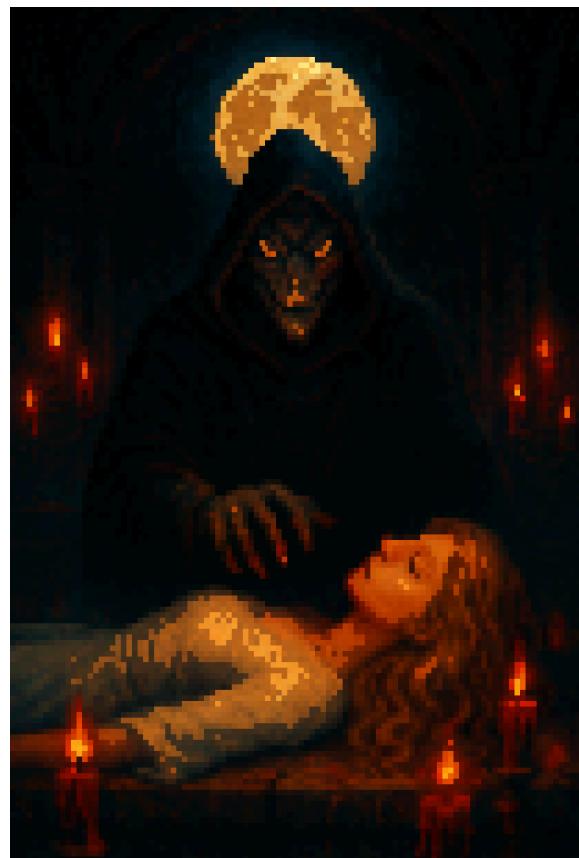
당신은 조심스럽게 빛이 새어나오는 곳으로 다가갔다. 그곳은 거대한 지하 공간으로 이어지는 입구였고, 틈새로 내려다보니 놀라운 광경이 펼쳐져 있었다.

## 《달의 의식》

지하 대공간의 중앙에는 거대한 석조 제단이 놓여 있었고, 그 주위로 붉은 촛불들이 원형으로 배치되어 있었다. 제단 위에는... 당신의 연인이 여전히 대리석처럼 굳어진 채로 누워 있었다. **그녀의** 모습은 이전보다 더욱 창백해 보였지만, 가슴이 미세하게 오르내리는 것으로 보아 아직 완전히 돌이 되지는 않은 것 같았다.

바로 그때, 멀리서 고함소리와 함께 병사들이 분주하게 움직이는 소리가 들렸다. "정문에 침입자가!" "모두 밖으로!" 철갑옷이 부딪치는 소리와 발걸음이 점점 멀어져갔다. **신부의** 유인 작전이 성공한 것이었다.

제단 주변에는 **검은 로브**를 입은 몇 명만이 남아 있었다. 그들 중 가장 앞에 선 자가 로브의 후드를 벗자, **라몽 드 베르네이**의 모습이 드러났다. 그런데 그의 모습은 예전과 달랐다. 눈동자는 파충류처럼 세로로 갈라져 있었고, 피부는 비늘 같은 무늬로 덮여 있었다.



"오늘 밤, 보름달이 정점에 이르면..." **라몽**의 목소리는 인간의 것이 아닌 순 목소리였다. "이자의 생명력을 통해 내 진정한 모습이 완성될 것이다. **바실리스크**의 왕으로서 말이지."

**당신은** 전율했다. **라몽 드 베르네이** 자신이 바로 **바실리스크**였던 것이다. 그는 달의 힘을 이용해 점점 더 강력한 괴물로 변해가고 있었고, **당신의** 연인을 마지막 재료로 사용해 완전한 변신을 이루려 하고 있었다.

하늘을 올려다보니, 천장의 구멍을 통해 보름달이 서서히 정점에 다가가고 있었다. 시간이 많지 않았다.

## 《최후의 대결》

**당신은** 더 이상 숨을 수 없었다. 지하 공간으로 뛰어내리며 외쳤다. "그만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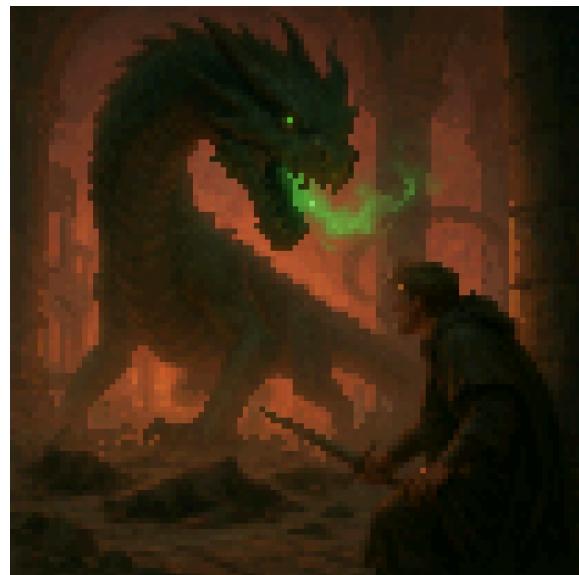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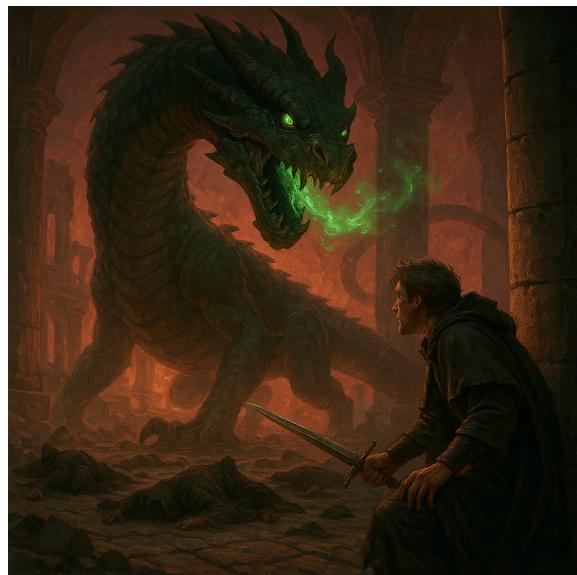
**검은 로브의 무리들이** 놀라 돌아봤고, **라몽**이 **당신**을 보며 이를 갈았다. "네가... 네가 방해했던 자로군. 하지만 늦었다. 의식은 이미 시작되었어!"

**검은 로브** 무리들이 **당신**을 막아서려고 일제히 달려들었다.

당신은 간신히 **로브 무리**들을 해치우고 의식을 진행하던 **라몽**을 막았다. “완전하진 않지만 상관 없어 이제 나를 막을 순 없을 거다!”

당신이 로브 무리들에게 시간이 빠진 사이 의식을 마친 **라몽**의 몸이 급속도로 변하기 시작했다. 키가 2미터 이상으로 커지고, 온몸이 비늘로 덮이며, 눈에서는 녹색 불꽃이 타올랐다. 이미 **바실리스크**의 모습이었다. 다만 방해를 받아서인지 완전하지는 않았다.

“감히 내 의식을 방해하다니!” **바실리스크**가 포효하며 거대한 꼬리로 당신을 향해 휘둘렀다.



**바실리스크**와의 승부에서 당신은 거의 막상막하였지만 조금씩 밀리고 있었다. 당신은 가쁜 숨을 고르며 잠시 거리를 벌려 기둥 뒤로 몸을 숨겼다. 그 때 천장 틈으로 희미한 붉은 빛이 스며들기 시작했다. 새벽이었다.

당신은 **비르나**의 말을 떠올렸다. “새벽이 밝아올 때... 태양빛이 드리워 거울을 비추어야 한다.”

“도망만 치는 겁쟁이!” **바실리스크**가 조롱했지만, 당신은 이제 때가 되었음을 알았다.

## 《태양의 심판》

당신은 가슴에 품고 있던 **비르나의 태양 거울**을 꺼내들었다. 작은 거울 조각이 천장의 새벽빛을 받아 따뜻한 황금빛으로 빛나기 시작했다.

**바실리스크**가 거울을 보고 뒤로 물러났다. “그건... 설마!”

점점 강해지는 새벽빛이 거울에 모여들었다. 당신은 거울을 **바실리스크**를 향해 돌렸다. 순간, 거울에서 강렬한 황금빛이 폭발하듯 뿐어져 나왔다.

“아아아악!” **바실리스크**가 고통스러운 비명을 질렀다. 그의 비늘이 타들어가기 시작했다.

당신은 거울의 각도를 조절해 태양과 함께 **바실리스크**의 모습이 거울 표면에 비치도록 했다. **비르나**가 말했던 대로,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본 **바실리스크**의 몸이 굳기 시작했다.

"이럴 수가... 이런 일이!" **바실리스크**가 절규했지만, 이미 다리부터 서서히 돌로 변해가고 있었다.

태양이 완전히 떠오르자, 거울에서 나오는 빛은 더욱 강렬해졌다. **바실리스크**는 마지막 비명과 함께 완전한 석상이 되어 무너져 내렸다.



## 《신부의 귀환과 해방》

**바실리스크**가 완전히 돌 조각상이 되어 무너져 내리자, 마치 마법이 풀리듯 제단 위의 당신의 **연인**이 천천히 숨을 쉬기 시작했다. 창백했던 피부에 다시 혈색이 돌아오고, 굳어있던 몸이 부드러워졌다.

"여기가... 어디지?" 그녀가 눈을 뜨며 당신을 보았다. "당신... 돌아왔군요."

바로 그때, **신부**가 지하 공간으로 뛰어들어왔다. 그의 옷은 찢어져 있었고 얼굴에는 상처가 있었지만, 눈에는 안도의 빛이 가득했다.

"다행이야! 성공했구나!" **신부**가 숨을 헐떡이며 말했다. "병사들을 한참 둘게 만들었지만, 이제 그들도 주인을 잃고 혼란에 빠져 있을 거야."

당신은 연인을 안으며 눈물을 흘렸다. "이제 괜찮아. 모든 게 끝났어."

지하 공간이 흔들리기 시작했다. **바실리스크**의 죽음과 함께 이곳을 떠받치던 마법의 힘이 사라진 것 같았다. 세 사람은 재빨리 지하 통로를 통해 탈출했다.

## 《새로운 새벽》

**라 포스 디온** 연못가로 돌아왔을 때, 동쪽 하늘이 서서히 밝아오고 있었다. 진짜 새벽이 오고 있었다. **비르나의 태양 거울**은 이제 그 역할을 다했다는 듯 평범한 거울 조각으로 돌아가 있었다.

**토네르**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었다. **라몽 드 베르네이**의 성에서 큰 폭음이 들렸고, 성이 무너져 내리는 것을 모두가 목격했기 때문이었다. **신부**가 나서서 사람들을 진정시켰다.

"모든 악한 것들이 사라졌습니다. 이제 우리 마을에 다시 평화가 찾아올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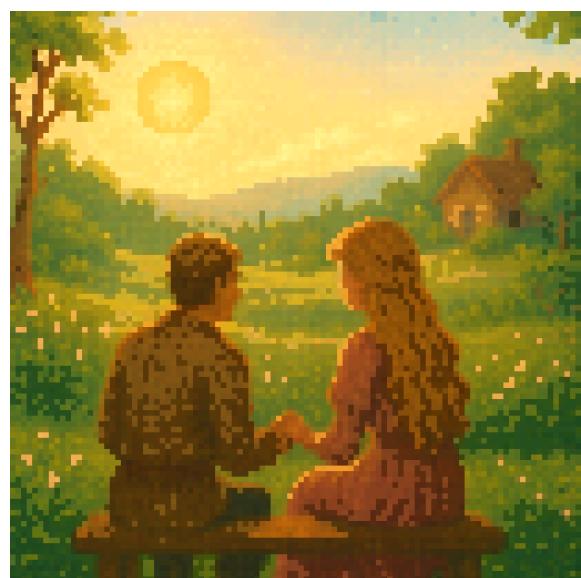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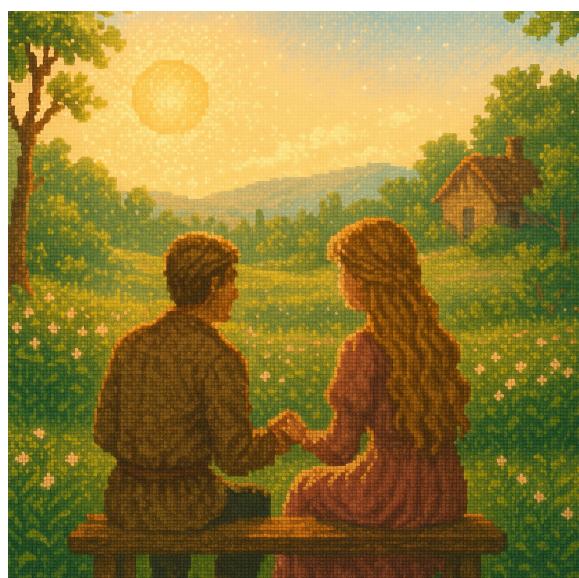
며칠 후, **신부**의 주례로 당신과 연인은 조용한 결혼식을 올렸다. 마을에는 다시 평화가 찾아왔고, **라 포스 디온** 연못도 이제는 그저 아름다운 연못일 뿐이었다.

**신부**는 이후 마을의 영웅으로 여겨졌고, 그의 용감한 행동은 오랫동안 사람들의 기억에 남았다.

가끔 당신은 **비르나의 태양 거울**을 꺼내보곤 했다. 그 작은 거울 조각에는 여전히 따뜻한 빛이 머물러 있었고, 당신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었다.

## 에필로그: 전설의 탄생

세월이 흘러, **토네르** 마을 사람들은 당신과 **신부**의 이야기를 전설로 이야기하게 되었다. 용감한 청년과 현명한 신부가 힘을 합쳐 고대의 괴물과 맞서 싸웠다는 이야기를. 그리고 그 이야기는 대대로 전해져, 어둠 속에서 길을 잃은 이들에게 희망의 빛이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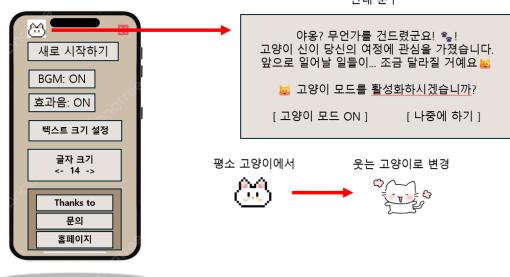


당신과 연인은 평생을 함께 행복하게 살았고, 그들의 집에는 **비르나의 태양 거울**이 소중히 보관되어 있었다. 그 거울은 이제 마을의 수호자가 되어, 다시는 어떤 어둠의 힘도 이곳에 발을 들이지 못하게 지켜주었다.

[ 끝 ]# 《달빛의 저주》

# 고양이 이스터 에그

TODO: 옵션 시스템



TODO: 옵션 시스템



## 에필로그: 전설의 탄생

세월이 흘러, 토네르 마을 사람들은 당신과 **신부**의 이야기를 전설로 이야기하게 되었다. 용감한 청년과 현명한 **신부**가 힘을 합쳐 고대의 괴물과 맞서 싸웠다는 이야기를. 그리고 그 이야기는 대대로 전해져, 어둠 속에서 길을 잃은 이들에게 희망의 빛이 되었다.

당신과 연인은 평생을 함께 행복하게 살았고, 그들의 집에는 **비르나의 태양 거울**이 소중히 보관되어 있었다. 그 거울은 이제 마을의 수호자가 되어, 다시는 어떤 어둠의 힘도 이곳에 발을 들이지 못하게 지켜주었다.



하지만 당신만이 아는 비밀이 하나 있었다. 저주가 풀렸을 때, 연인은 완전히 인간으로 돌아오지 않았다. 보름달이 뜨는 밤이면 그녀는 작고 귀여운 고양이로 변했다. "나옹~ 이것도 나쁘지 않네요" 하며 당신의 무릎 위에서 행복하게 골골거리곤 했다.

[ 끝 # 달빛의 저주... 그리고 고양이? ]